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사용,
유감 포함한 알림보도로 결정

법원 판결문의 부정확한 인용보도,
기사수정 및 댓글삭제로 조정성립

공개된 행사에서의 초상 보도,
유감 표명 및 유튜브 영상
수정으로 조정성립

01

A 인터넷신문은 사측과 밀실 협상을 벌인 모 회사 노조위원장의 법적 책임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면서 보도와 관계가 없는 신청인 노동조합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신청인 노동조합과 노조위원장은 노조위원장의 업무에 관한 부정적인 보도에서 전혀 무관한 신청인 노조위원장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심리결과, 중재부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더욱 신중하게 사진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노조위원장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한 데 따른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그러나 피신청인 A 인터넷신문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고, 신청인의 항의를 받은 즉시 홈페이지 및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사진을 일괄 삭제한 사실 등을 고려, 신청인에 대한 유감 의사를 포함하여 해당 사진이 보도내용과 무관함을 알리는 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여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

02

B 언론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3세 아이를 의자에 앉히다가 팔꿈치를 탈골 시켰으나 대법원은 신청인이 보육교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무죄 판결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자신이 아이 팔꿈치를 탈골 시켰다는 것을 전제로 보도가 이뤄졌으나 당시에는 아이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한 바가 없고, 대법원 판결문에도 신청인 때문에 아이의 팔꿈치 탈골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은 아이 팔꿈치 탈골은 본인과 무관함에도 해당 보도로 인해 학부모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일부 네티즌들은 기사 하단에 심각한 악성 댓글을 게재하여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B 언론사는 신청인이 '무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보도하였으나 일부 부정확한 표현으로 신청인이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B 언론사는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청인과 아이의 팔꿈치 탈골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신청인이 문제 제기한 내용의 수정 및 신청인에 대한 비난 댓글 일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 의사를 표명, 조정이 성립됐다.

03

C 방송사는 영어전문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울분을 토하는 신청인의 얼굴과 실명, 근무하는 중학교명 등을 동의 없이 방송하였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계약직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었고, 초상권이 침해되어 앞으로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포털 및 SNS 등에도 해당 동영상상이 퍼지고 있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 방송사는 공개적인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신청인을 촬영했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보도했기 때문에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정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얼굴이 비교적 오랫동안 클로즈업되어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초상 촬영이었고, 방송내용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의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수정할 것에 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는 중재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공감블로그 속 『**다견론** **사람**』 3월호 100자평

machury21 님

『**다견론**  **사람**』을 읽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아~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턱 높은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접하고 알 수 있게 관공서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등 공공장소에도 『**다견론**  **사람**』이 비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영 님

〈품격 있는 죽음〉을 읽고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참하지 않게, 당당하게, 품격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오늘,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을 더 많이 아끼려고 보살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윤정 님

〈여행수첩〉을 읽고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공부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는 중3 아들의 SNS에서 본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내내 제 마음을 저미고 있었거든요. 그리스인들의 낙천성을 본받아 주말에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하며 몸트는 봄의 기운을 느껴보고 싶네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공감블로그(<http://pacblog.kr>) 『**다견론**  **사람**』 4월호 발간 이벤트 페이지에서 소감이나 의견을 4월 20일(수)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공감되는 100자평을 남겨주신 분 중 3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기프티콘(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